

“바둑 상대는 / 밭기도 하지만 / 그림기도 해”

친구사이의 우정을 비롯해 인간관계 내에 깃들어있는 심리상태를 살펴본 이 책 《우정의 재발견》 중 〈우정을 둘러싼 문제들〉 편에 인용된 하이쿠다. 내용 전체를 통틀어 ‘친구’의 정의를 아주 명확히 전달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오래된 친구 녀석이 있다. 친구사이로 지내온 지 25년이 지났으니 그 속내야 뻔히 보이고도 남는다. 한때는 그 친구의 당차고 잘난 면이 좋았다. 본인은 ‘지극히 평범하다’고 말하지만 내가 보기엔 어느 것 하나 남부러울 것 없는 녀석이다. 서울에서 비싼 땅값을 자랑하는 지역에서 나고 자라, 남들 부러워하는 학벌 딱 하니 세우고는 대졸 실업을 최고치를 자랑하던 해 대기업에 입사했다. 대학 내내 전공 학과를 혐오하더니 회사에 들어가 적성에 맞는 길을 찾고 공짜로 교육까지 받았다. 그렇게 알짜배기 수습 시절이 끝나자마자 얼마만큼의 능력개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녀석은 신기하게도 연봉을 높여 개구리처럼 폴쩍 뛰어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 했다. 만날 때마다 학창시절의 자유로움이 그림다며 노래를 불러대던 녀석은 알고 보니 그 나이, 그 경력 동기들보다 두 배에 달하는 휴가를 쓸 수 있었으며, 당연하듯 시간이 날 때 마다 해외여행을 다녔다. 참 부럽고도 밭살맞은 친구였다. 자신의 상황이 부러움을 살 만하다는 것을 인정이나 하면 또 모르겠는데 스스로는 겸손인지 겸손을 가장한 자랑인지 헷갈릴 정도로 극구 남들의 부러움을 사양했다. 이상하게도 그 친구의 그런 모습이 기괴해 보이기 시작했다. 사실 한편으로는 자격지심과 질투심에 괴로워하기도 했다. 지독히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고서야 자신의 상황을 감사한다거나 남들의 추켜세움을 민망해 하지 않고 스스로 ‘나는 그렇게 잘 나가지 않아’라고 주장하는 모습이 우습기도 했다. 도대체 무슨 마음을 먹으면 저렇게 아무렇지 않음을 당당하게 여길 수 있을까 하는. 지금 돌이켜보니 꼬인 생각을 했던 내 자신도 이상하긴 마찬가지라 여겨지지만.

그럭저럭 싸우고 화해하고 서로의 단점에 놀라워하면서도 녀석과는 아직 친구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으면서도 우린 아직 서로의 치부를 말로써 건드린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뭐 어느 정도 언성을 높이거나 비아냥대



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긴 한다. 그러나 늘 농담으로 포장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서로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 속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테니 말이다.

《우정의 재발견》의 저자 가와이 하야오는 일본의 유명 심리 학자이자 임상요법가로 책을 통해 사람 서이에 존재하는 여러 감정의 본질과 파생 현상을 보여준다. 제목이 내용에 비해 거창 하게 붙여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지만 관계의 정의와 종류를 조목조목 언급해 모아놓은 솜씨는 탁월하다고 말해야겠다. 소 제목과 내용이 제대로 부합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희한하게도 읽고 난 후에는 개인적 사례를 떠올리거나 적용할 수 있다.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자는 프로이트와 융의 관계를 예로 든다. 그들은 만나자마자 의기투합해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다.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고 분석하면서 학문적 동지로서 지적인 즐거움을 공유하기도 했다. 그러다 둘 사이에 강렬한 동일시 현상이 일어났다. 밀착된 관계에서 불신이 싹트게 되니 그들의 우정은 곧 금이 갔다. 저자는 이 상황에 대해 '왜 그런가'라는 의문 보다는 자립적 인격을 가진 두 사람이

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결국 두 사람은 우정을 배신함으로써 각자의 자립성을 지킬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두 인격체가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배신이라는 단어를 확대 해석하거나 잘못 적용시킨 듯 보이지만 그가 말하고자 하는 친구를 대할 때의 태도란 우정이 강해질 때 일어나는 동일시나 이상화(理想化)는 반드시 분별해야 하며, 친구의 단점을 발견하고 놀랐을 때 '배신당했다'는 감정보다는 서로의 다른 장점을 잘 살펴보는 것. 우정의 강도보다 깊이에 주목함으로써 배신의 비극을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제목은 '우정'에 집중하면서도 책은 오히려 인간의 내재된 감정인 '사랑'에 천착한다. 남녀사이의 우정과 사랑, 친구 사이에서 발생하는 동성에 또는 지극한 관심. 사실 인간은 고독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우리는 누구나 친구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사람마다 방식에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든 갖춰야 할 조건이 하나 있다면 '자존감'을 꼽겠다. 다 아는 이야기이긴 하다. 자기 자신에 대한 건전한 사랑 없이는 타인(가족마저도)을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나 자신의 재발견. 선행되어야 할 항목이다. **★**

송보경 기자